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한 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1/ 1/ 20 통권 1502호

CEO · CFO · COO · 회계책임자 · 조세전문가 · 재경실무자 · 총무담당자 · 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익원장

동대문의 창조적 벤처정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박윤종 회계사 :

회계법인간 신·구감사인간의 회계기준적용 보수적 주장 의견차이 쟁점사례들

CFO · 회계실무자 · 조세전문가 정보

- 일용근로자는 15만원 초과금액에 결국 2.7%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으로 종결 된다
- 법인사업자는 1.25.까지, 개인사업자는 2.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세무조사 불편사항 이제 간편하게 제출하세요
- 2021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회계기준 안내

CMO · 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의 가산세 적용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수입금액은 제외함 (p.13)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戰略

<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1세대의 판단범위와 1주택과 2주택의 비과세 조건 >

1. 1세대의 본질적 정의(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 거주자와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공유자를 포함(거주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비속과 배우자, 형제자매 포함, 일시퇴거자 포함)
2. 배우자가 없어도 별도의 1세대로 보는 각 경우(시행령 제152조의3)
 - ① 해당자(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② 해당자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이거나 ③ 기본생활보장법상의 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이면서 소유주택을 관리 · 유지하고 독립된 생계유지자
3. 별도의 1세대로 볼 수 없는 경우
 - ① 미성년자는 1세대 아님 ② 단, 미성년자가 결혼했거나,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별도의 1세대로 봄.
4.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①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② 주택보유기간 2년(조정지역이면 보유기간 내에 거주기간 2년도 해당되어야 함) ③ 기존 다주택자는 2021년부터는, 다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 2년거주를 판단함(기재부 재산세과 1132, 2020.12.24 해석임)
5. 불가피한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조건
 - ① 이사목적: 새집을 사고 1년 내 기존 집 팔기(2년 충족조건) ② 상속받은 주택이 있어도 기존 1주택 비과세에 영향없음 ③ 부모 동거봉양시: 합가 후 10년 내 양도(나중주택은 2년 요건) ④ 혼인 2주택: 결혼 후 5년내 처분 ⑤ 문화재 주택은 1주택 비과세에 영향없음 ⑥ 취학, 질병, 근무이전 등 불가피사유로 수도권외 주택 3년내 매각 ⑦ 이농인의 5년 이상 거주주택 ⑧ 영농 · 영어의 귀농주택은 영향없음.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 · 경리 · 세무 · 재무 · 인사 · 노무 · 총무 · 법무 · 기획 · 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 · 보육 · 지원센터

안전조세정보
02-829-7575

주안세 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02 호 / 주간 3호

2021. 1. 20. (수)

· 발 행 인 : 이 윤 연
· 제 작 :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7575
팩스: (02) 718-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3988
팩스: (051) 642-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9761
팩스: (053) 627-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2427
팩스: (042) 526-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198993-13-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지문
- ⑩ 세무·회계·재경교론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1세대의 판단범위와 1주택과 2주택의 비과세 조건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회계법인의 피감회사 신·구감사인간의 회계기준적용 보수적 주장 의견차이 쟁점사례들	2
C E O 에 세 이	동대문의 창조적 벤처정신	4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해외 Claim 비용 청구 관련 세금 이슈 - 비용인정 영수증 문의 - 회사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해도 되나요? - 부가세 월별 조기환급 신고시 영세율 매출 누락	6 7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일용근로자는 15만원 초과금액에 결국 2.7%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으로 종결 된다	8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 - 연말정산 유용한 모바일 서비스 확대 내용	10 11
직 장 인 Survival	정신적 탄력성을 구축하고 향상시키는 3가지 방법	12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예금보험료는 금보험료는 부모금융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예금 등 연 평균 잔액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 받은 차등보험료를 적용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해당 차등보험료를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기준법령법인-109, 2020.06.10) -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의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의 관계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국제세원-1747, 2020.04.21)	13 14
세 정 뉴 스 와 해 설	간이과세자 기준 8000만원... 부가율 15~40% 확대	15
마케팅 Tax consulting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의 가산세 적용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수입금액은 제외함	13
세 무 정 보	- 법인사업자는 1.25.까지, 개인사업자는 2.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세무조사 불편사항 이제 간편하게 제출하세요	16 37
회 계 정 보	- 2021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회계기준 안내	41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5

회계법인의 피감회사 신·구감사인간의 회계기준적용 보수적 주장 의견차이 쟁점사례들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 · 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증여·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829-7575)

- ① 매출수익인식기준 : 선적 · 인도기준, 기성고완성도기준, 현장설치시공 후 검품확인기준, 최종수금기준 등 가능한 보수적 적용할 것(대조양사건 등의 교훈)
- ② 원가 · 비용의 발생기준 :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외비용 등에 대해 발생주의로 총액이 통합되도록 업무흐름전반과 은닉 또는 우발계약 확인
- ③ 매출채권 대손충당 : 결산일 이후 2달 내 수금전수확인하고, 통상수금기간 지난건 대손충당비용 설정
- ④ 현금, 예금, 유동성자산평가 : 펀드 등 복합상품 투자액의 시세변동상황반영, 평가손실액 전액반영
- ⑤ 재고자산손상차손 : 코로나untact시대를 반영해 재고자산시세 엄격 반영, 장기불변시 손상차손반영
- ⑥ 급여퇴직금전액반영 : 현실급여뿐 아니라 퇴직금 지급과정을 분석해 근속조건에 연동되는 퇴직급여반영
- ⑦ 고정자산 손실반영 : 코로나로 정상가동 이하의 설비자산 감가상각비를 생산원가나 영업외손실반영
- ⑧ 이연법인세 자산 · 부채 : 이연효과요인정밀분석하고, 이연효과 없는 경우 당기손실로

우선반영

- ⑨ 메자닌증권의 적정반영 :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채무에 대한 유입액과 자본 · 부채계상액의 정확성
- ⑩ 종속자회사 · 관계회사손익반영 : 특히 해외설립판매종속회사, 관계회사 등에 밀어내기 수출과 장기간누적재고는 손실반영, 내부거래이익상계 등
- ⑪ 영업권, 특허권 등 신중계상 : 영업권 등의 실질성 반영, 가치없거나 과잉오류지급액은 당기손실로 반영(장부이외 초과이익력 영업권 반영은 아직 안됨)
- ⑫ 특관자 거래명시 : 대주주 · 경영자, 임직원 등과의 내부거래, 지급보증, 담보제공 등 주식사항 상세 기재
- ⑬ 바이오 · 벤처 등 연구개발비 : 경상적 연구개발비의 당기비용화, 1 · 2 · 3상 성공가능성의 보수적 평가
- ⑭ 소송 등 우발채무 · 부외부채 철저파악 : 비정상거래, 일시 · 우발적사항, 분석적 검토기간별 특이사항추적
- ⑮ 매년도 테마감리 : 2020년도 신리스기준(모두 금융리스), 충당우발부채, 장기공사계약의 수익인식임.

동대문의 창조적 벤처정신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 윤윤수 (Fila 코리아 회장), 이해익 공동칼럼

동대문 시장은 각종 언론의 조명은 물론, 대학의 케이스 스터디로 부상했고 그 시장을 분석한 논문까지 등장했다. "디자이너, 벤처 상인의 노하우"와 "대학 연구소의 첨단기술"이라는 점이 다를 뿐 생산에 있어 자기 완결적 구조를 갖는 점이 같다고 한다. 그래서 미국의 실리콘 밸리와 비교해 "동대문 밸리"라고도 불렸다. 그리고 모방만 일삼던 재래시장에서 최신 디자인 개발을 접목하면서 활력있는 세계적 패션 명소로 자리잡았다. 또한 우수 일간지 언론인의 칼럼이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디에서 발견하냐구요? 동대문 시장입니다. 아주 건강한 벤처 기업의 집합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는 재벌들이 동대문 시장을 배워야 합니다." 미국 유학을 다녀와서 국내 우수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어느 경제학 교수의 탄성을 소개했다.

한편 요즘 주식 시장이 시끄럽다. "집단광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재미있다. 다시 말하면 그 간의 지속적인 폭등도 군중의 집단 광기에 의한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지난 1년 내내 "거품론"이 끊이지 않았었다. 아무리 성장성이 높다해도 이렇다할 실적도 없는 인터넷 주식의 빚가 총액이 수천억원의 이익을 내는 제조업체들보다 높은 것이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한 때 한국 경제를 떠받치며 성장의 주역이라고 정부가 추켜세우던 재벌들이 무수히 쓰러지며 IMF를 불러 왔다. 정경 유착으로 "배째라식"의 방만 독재경영을 일삼던 재벌들. 결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빚만 남기고 사라진 교훈을 음미해야 한다. 정보화 시대를 외치며 정보통신 분야의 첨단 벤처 기업 육성을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 것이 심상찮다는 게 필자만의 기우는 아닌 것 같다. 이에 비하여 "동대문 패션 밸리"는 "역동하는 시장"이다. 패션벤처 기업이 정신의 열매다.

첫째, 벤처란 정부가 국민의 돈으로 지원하고 육성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스스로 모험을 하며 쓰러지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 가운데 감동을 받은 천사(?), 투자자가 모여드는 것이다.

둘째, 살아 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모방을 버리고 창조적 디자인으로 승부하며 회생했다. 노브랜드(No Brand), 노 날리지(No Knowledge) 산업으로부터 지식기반산업으로 탈바꿈했다.

셋째, 제품 생산에 아웃소싱을 일반화했다. 몸을 가볍게 하여 산업의 집적화를 꾀했다. 저비용 생산체제를 이룩했다. 어떤 디자인이든 2~3일 만에 납품하는 고효율을 낳았다. 고도의 QRS(Quick Response System)를 이룩했다. 이는 빠른 판단력과 열린 사고와 탄탄한 신뢰 및 협력관계의 산물이다. 그리고 엄격히 규칙을 지키고 과감히 퇴출도 불사하는 공정성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축약하면 "시장의 기본"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애기다. 기본의 존중 없이 결코 첨단의 열매도 없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스스로 책임지며, 열정적으로 부지런하며, 모방을 깨끗이 버리고 창조적인 벤처 정신으로 개척한 열매인 셈이다. 이는 필자가 Fila 코리아의 의류사업을 경영하는 지향점과 결코 다르지 않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 재정환율

통 화 명				1월 8일(금)	1월 11일(월)	1월 12일(화)	1월 13일(수)	1월 14일(목)
미	달	러	(USD)	1087.70	1094.40	1097.80	1099.90	1095.00
일	본	엔	(JPY)	1047.68	1052.36	1053.50	1059.68	1054.25
캐	나	다	달 러	(CAD)	857.54	861.05	859.07	865.18
홍	콩	달	러	(HKD)	140.29	141.13	141.55	141.84
위	안	화	(CNH)	168.90	169.41	169.34	170.07	169.84
유	로	화	(EUR)	1334.66	1335.50	1334.16	1342.48	1331.19
호	주	달	러	(AUD)	844.98	847.89	845.14	854.73
싱	가	폴	달 러	(SGD)	821.28	824.93	824.82	831.46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71.43	270.93	271.08
								270.74

해외 Claim 비용 청구 관련 세금 이슈

- Q** 해외 3자 법인인 A에서 구매한 자재를 고객사에 납품하였으나, 불량 발생하여 당사에서 관련 비용을 고객사에 선 송금.
이 대금을 해외 3자법인 A에서 당사의 해외자회사 B로 송금 후 당사로 송금 받고자 함.
이 때, 해외 자회사인 B에서 당사로 송금시에 당사가 계산서나 Invoice가 아닌 Claim 청구 형태로 발행하여 Claim 청구서 내 금액을 전액 송금받아도 회계/세무 이슈가 없는지요?
- A**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니므로 회계/세무상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정 or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 Q** 1. 계약이 끝난 임차업체가 두고 가는 유리벽면 및 전동스크롤기기가 본원의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 항목으로 볼 수 있는지?
2. 화장품 업체가 화장품을 기부하는 경우
가. 한 화장품 업체가 의료진 및 환자 등을 위해 화장품을 현물기부하고자 함.
나. 본원은 앞서 기술한대로 시설, 교육, 연구일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보고, 환자 지원을 위한 기부일 경우 지정기부금 처리하고 있음
다. 질문 : 화장품을 기부받을 경우 이것을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 A** 1. 귀사와 임차업체간의 임대차계약에 계약기간 종료후 원상복구의무가 있었는지가 불분명한데, 원상복구의무가 있음에도 원상복구하지 않고 원상복구비 대신 사용하던 비품 등을 주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면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기부금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 서삼-753, 2007. 03. 09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이 자기의 부담으로 실내 장식 등을 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을 경우에,
1)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는 때에는 임대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원상

- 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2. 환자 등의 지원을 위한 현물기부받은 경우 지정기부금이라고 판단됩니다.

회사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해도 되나요?

Q 현재 회사에서 사업소득자로 계약된 인원 3명을 아르바이트 계약을 통해 근로소득도 받으려 합니다. 이럴때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 1. 아르바이트 계약일 경우 4대보험 가입을 합니다.
- 2. 11월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아르바이트) 두 소득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A 종속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제공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근로소득이며, 종속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는 사업소득(비종속 계약)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즉, 종속적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모든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으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부가세 월별 조기환급 신고시 영세율 매출 누락

Q 당사는 부가세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9월분까지 신고를 마친 상황이며,

9월 29일 선적 영세율 매출 1건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 1) 10월분 월별 조기환급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면 될까요?
- 2) 가산세 대상인가요?

A 월별조기환급신고자의 수정신고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하면 되므로, 10월분 신고시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2기확정신고기간에 9월누락분을 예정신고누락분에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예정신고분에 대해 확정신고시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일용근로자는 15만원 초과금액에 결국 2.7%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으로 종결 된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근로소득자라고 하면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직장인만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 근로소득자 외에도 건설공사나 하역작업 등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도 근로소득자에 해당된다.

하지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자에 포함되지만 세무상으로는 고용의 불안전성과 소득금액의 영세성 등을 감안하여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즉, 일반근로자와 같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근로자인지 일용근로자인지의 구분에 따라 세금부담이 달라지는데,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제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근로자는 1년) 미만으로 고용되어야 한다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열거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로서 매시간, 매일 별 근무조건에 따라서만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지칭하는데, 동일 고용주와 3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정규근로자로 본다.

건설공사 종사자들은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 동일 고용주와의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이 아닌 1년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으면 일용근로자로 인정된다.

이러한 일용근로자들은 일반 정규근로자와는 달리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완결되는데,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지급시 일급액에서 150,000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나머지 일용소득금액에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한 뒤, 여기에 55%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하여 원천징수를 하면 된다.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 산출세액 = (일급액 - 150,000원) × 6%

□ 원천징수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 일급여액이 200,000원인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 사례

① 산출세액 = $(200,000\text{원} - 150,000\text{원}) \times 6\% = 3,000\text{원}$

② 원천징수세액 = $3,000\text{원} - (3,000\text{원} \times 55\%) = 1,350\text{원}$

상기의 사례를 좀 더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200,000원의 일용소득금액에서 150,000원의 비과세금액(소득공제)을 공제한 50,000원에 대해 $2.7\% (= 6\% \times 45\%)$ 를 적용하면 1,350원이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하루당 15만원의 금액을 소득공제한 후의 나머지 금액에 대해 2.7%의 세율을 곱하면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일용근로자의 소액부징수의 판단은 지급시의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는 소액부징수라 하여 소득세를 부과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일 매일의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소액부징수에 해당되어 실제로 납부하는 세액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소액부징수의 판단은 유권해석(법인46013-343,97.2.1)에 따라 지급시의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매일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매일 지급시점의 지급금액으로 판단하지만 월단위로 일당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전체 금액을 지급받는 시점의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일당 17만원을 받는 일용근로자의 경우가 매일 일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540원 $[(170,000\text{원} - 150,000\text{원}) \times 2.7\%]$ 이 근로소득세가 되는데, 이는 소액부징수에 해당되므로 실제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일당을 30일간 합산하여 지급받으면 근로소득이 5,100,000원 $(= 170,000 \times 30\text{일})$ 이 되므로, 원천징수세액은 16,200원 $[(5,100,000 - 4,500,000) \times 2.7\%]$ 이 되고, 소액부징수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러므로 일용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일당을 받더라도 매일 매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가 일괄적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것보다 세금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미납납부하는 경우에는 $(\text{미납세액} \times 3\%) + (\text{미납세액} \times \text{미납기간} \times 3/10000)$ 의 가산세를 미납세액의 10%를 한도로 하여 납부해야 한다. 또한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			
	1~2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직불 ·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30%	60%		30%
도서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사용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30%	60%		30%
전통시장 · 대중교통 사용분	40%	80%		40%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총급여액 기준	현 행	개 정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30만원
7천만원~1.2억원	250만원	28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230만원

*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도서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은 각각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 소득 공제 가능



연말정산 유용한 모바일 서비스 확대 내용

업무명	서비스 확대 내용
연말정산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폰의 연말정산 자료 PDF 내려받기 - 근로 · 퇴직 · 일용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영수증 발급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 - 신용카드 매출내역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세금계산서 일괄 · 반복 · 복사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 수정신고대상 조회
세무대리인의 수입납세자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장 · 신고대리 · 법인외부조정납세자 등록 및 정보조회 - 고지내역 및 체납내역 조회, 납부서 저장 - 부가세 신고안내문, 종합소득 신고도움 서비스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 매입 조회 - 현금영수증 매입 · 매출 조회 - 신용카드 매출내역 조회 - 사업용신용카드 ·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누계조회 등



세목별 모바일 신고 가능 범위

세목	신고 가능 범위
양도 · 증여 · 소비 · 원천 · 종부 · 교육 · 인지 · 주세	대상 납세자 전체
부가가치세	일부(영세율 · 재활용 · 의제매입자 등 제외)
종합소득세	일부(복식부기 · 간편장부 · 기준경비율 등 제외)
증권거래세	일부(예탁결제원, 증권회사 등 제외)
상속세	'21. 상반기 제공 예정
법인세	'21.8월부터 중간예납 제공 예정



정신적 탄력성을 구축하고 향상시키는 3가지 방법

1. 기술 습득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면 정신 회복력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존감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숙달과 역량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우는 기술은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는 일상에 도움이 되는 작업 또는 선택적 주의력이나 인지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역량 기반 학습을 통해 새로운 취미 활동을 배우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룹 환경 내에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면 사회적 지원의 이점이 생겨 탄력성을 키웁니다.

2. 목표 설정

목표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 및 실행은 의지력과 정신 탄력성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표는 크거나 작거나 신체 건강, 정서적 복지, 경력, 재정, 영성 또는 그 밖의 모든 것에 관련 될 수 있습니다. 기술 습득과 관련된 목표는 두 배의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악기 연주 배우기 또는 새로운 언어 배우기. 일부 연구에 따르면 개인을 넘어 목표, 즉 종교적 참여 또는 원인에 대한 자원 봉사를 목표로 설정하고 노력하는 것이 회복력을 높이는 데 특히 유용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깊은 목적과 연결감을 제공할 수 있으며 도전적인 시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3. 통제 된 노출

통제된 노출은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에 대한 점진적인 노출을 말하며, 개인이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탄력성이 향상 될 수 있으며 특히 기술 획득 및 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세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설은 유용한 생활 기술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연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특정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통제된 노출과 관련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 두 사람의 작은 청중을 상대로 연습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청중의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최 신 판 례 예 규

Marketing Tax consulting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의 가산세 적용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수입금액은 제외함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의 단서 조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미가맹에 대한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수입금액은 제외하고 있음. 매출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100%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적용 대상이 없음

서면전자세원-1882, 2020.05.21

질 의

- 연구 및 개발 서비스(업종코드 730000) 업체로서 100% 세금계산서 매출만 있음

질의내용

- 연구 및 개발 서비스(업종코드 730000) 업체로서 100% 세금계산서 매출만 있는 경우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회 신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의 단서 조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미가맹에 대한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수입금액은 제외하고 있음. 매출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100%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적용 대상이 없음

예금보험료는 부보금융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예금 등 연평균 잔액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 받은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해당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기준법령법인-109, 2020.06.10

질 의

-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차등보험료율을 통보 받아 직전 사업연도의 예금 등 평균잔액에 곱하여 산정한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회 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보금융회사가 「차등보험료율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차등보험료율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 받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해당 예금보험료는 차등보험료율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법인-4618, 2020.04.20

질 의

- 질의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고 있음

질의내용

- 연결납세방식에 따른 연결집단의 최저한세 적용

방법

(갑설)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산출한 최저한세와 산출세액의 차이를 각 연결법인별 세액공제 발생액의 발생비율로 안분하여 산출
(을설) 각 연결법인별로 최저한세액을 계산하여 연결집단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세액을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 발생액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

회 신

「법인세법」 제76조의16 제1항에 따른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등을 하지 아니하는 세액 중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각 연결법인의 같은 법 제13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공제·감면세액 합계액 중 해당 연결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의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의 관계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국제세원-1747, 2020.04.21

질 의

- 사실관계
- 내국법인B(이하 청구법인)는 1998년 4월에 내국법인A의 물류 사업부문이 분사되어 설립된 법인으로 내국법인A가 생산한 제품을 대상으로 국내판매물류, 해외판매물류 및 제품배달설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음

- 1) 내국법인A가 내국법인B 및 내국법인C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음
- 2) 내국법인C가 100%지분을 보유한 ① 외국법인D(홍콩 소재), ② 외국법인E(헝가리 소재), ③ 외국법인F(슬로바키아 소재), 3개의 해외 회사(이하 쟁점법인)에게 청구법인은 포워딩 용역을 제공하였음

- 3) 해당 거래는 경쟁입찰을 통해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별개의 법인

질의내용

-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에 해당하기는 하나, 서로 공통의 이해관계가 없이 각각 독립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바 본 거래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의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의 관계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1항 3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동법 제4조 1항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간이과세자 기준 8000만원… 부가율 15~40% 확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오르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5~40%로 확대됐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연도 매출이 8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적용받게 된다.

다만,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상품중개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이 추가됐다. 이중 최종소비자에 대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업종은 추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기존 5~30%에서 15%~40%로 상향조정됐다. 실제 부가가치율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행시기는 올해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이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 100→50억원 이상, 중견기업의 경우 전체 매출에서 수출비중이 50→30%로 완화됐다.

감사인선임위 기업부담 준다… 외부위원 5명→3명

상장사 감사인 선임 시 갖춰야 할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최소 정족수가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다.

외부위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기업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 내용은 외부위원 최소 정족수를 5→3명으로 줄이고,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을 임원 외 직원까지로 확대하는 것이다.

감사인선임위는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을 공정하게 선임하기 위해 외부위원을 다수로 한 위원회다.

감사위원회(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설치)가 없는 주권상장법인, 금융회사 등이 적용받으며, 인적구성은 내부위원(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내)과 외부위원(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2명, 채권 금융회사 임원 2명) 등 최소 7명이다.

채권 금융회사 위원은 그 자격을 임원으로 두어 정작 기업 속사정을 잘 아는 금융기관 일선 지점장 등은 배제됐다.

올해 감사인선임위 외부위원은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1명, 채권 금융회사 임직원 1명 등으로 구성하면 된다.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세금업무 5분의 4 내 손에서 '뚝딱'

국세청 홈택스의 모바일판 홈택스, '손택스' 앱의 서비스 제공수준이 PC 홈택스의 80% 수준까지 상승했다.

특히 납세서비스를 재설계해 안면인증, 챗봇상담과 증빙서류 스마트폰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서비스 도입으로 납세 편의성을 한층 높여졌다.

현재 부가·소득·양도소득세·증여·소비세 등 11종에 대한 정기신고와 수정·기한 후 신고 및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올 상반기에는 상속세, 8월 중간예납 때는 법인세 신고도 할 수 있다.

국세청 세금고지서도 카톡이나 모바일로 받아 볼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납세자보호·고충민원, 신고기한연장, 법인 사업자등록 등 대부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증명서를 내려받아 스마트폰에 저장하거나 관공서·은행 등에 바로 전송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현금영수증, 세무대리인의 신고 편의를 위한 수입납세자 관련 서비스도 확대됐다.

사업규모나 업종 등에 관계없이 홈택스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누구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 소비자에게 영수증을 보낼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1.25.까지, 개인사업자는 2.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국세청, 2021. 1

- (신고개요) 이번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법인사업자(103만 명)의 경우 1월 25일(월)까지, 개인사업자(665만 명)의 경우 2월 25일(목)까지 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에 대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하였습니다.
- (세정지원) 개인사업자 납부세액 감면1)·면제2) 등 세제지원과 중소기업 등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합니다.
 - 1)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4천만 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
 - 2)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0백만 원에서 48백만 원으로 상향
- (사전안내)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 맞춤형 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합니다.
- (신고편의) 모바일 신고를 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1544-9944)」 신고 서비스를 사업실적이 없는 영세사업자까지 추가 제공합니다.

* 신고서식이 복잡한 영세율·재활용·면세·의제매입 관련 신고는 '21년 7월경부터 제공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별도 운영하지 않으니,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게시한 '모바일·홈택스 신고방법 동영상'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개요

법인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월 25일까지

- (개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붙임1,2)

Ⅰ 신고대상 과세기간 Ⅰ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0. 7. 1. ~ '20. 12. 31.
	간이과세자	'20. 1. 1. ~ '20. 12. 31.
법인사업자		'20. 10. 1. ~ '20. 12. 31.

- 이번 신고 대상자는 768만 명*으로, 지난해 동기 확정신고 인원(735만 명) 보다 33만 명(법인 7↑, 개인 26↑) 증가하였습니다.
* 법인사업자 103만 명, 개인사업자 665만 명(일반 468만, 간이 197만)
- (직권연장)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전체에 대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 한하여 신고기한을 '21. 2. 25.(목)까지 1개월 직권 연장합니다. (665만 명)
* (근거법률)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 '21년 제1차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21. 1. 4.)
- 개인사업자는 연장된 기한까지 홈택스나 ARS·모바일 간편신고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 '21. 1. 25.까지 환급 신고한 경우, 법정기한 내 지급 예정(15~30일 이내)
- 법인사업자는 기존대로 '21. 1. 25.(월)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더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붙임3)
* 홈택스 전자신고 : 1. 1.~ 1. 25.(법인) / ~ 2. 25.(개인) 매일 06:00~24:00

2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①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 감면제도 시행

- (감면 신설) '20년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가 신설('20. 3. 23.) 되었습니다.(붙임4)
- (감면 대상)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 원 이하이고, 감면배제 사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됩니다.
* (사업자 기준) 사업자별 모든 사업장 공급가액 합산



② 개인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 (납부면제 추가)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을 '20년 한시적으로 상향(30→48백만원)하여 적용('20. 3. 23.)합니다.(붙임4)
 - (면제 대상 확대)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3천만 원 이상 4천8백만 원 미만, 감면배제업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이 아닌 간이과세자에 대해 납부세액을 면제합니다.
 - * 사업장별로 기준금액 적용(감면배제업종 겸업 사업자 안분계산)

③ 중소기업 등에 환급금 조기지급 및 납세유예 적극 실시

- (환급금 조기지급)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 (조기환급)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21. 1. 29.(금)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 * 법정지급기한인 '21. 2. 9.보다 12일 앞당겨 지급

┃ 지원 대상 ┃

중소 영세	① 직전연도 매출액 1,000억 원 이하 &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 불문)
혁신 지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⑤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피해 기업	⑥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⑦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 (일반환급) 영세사업자(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이하) 및 매출액 급감(직전기 대비 30% 이상)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 시,
 -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보다 10일 앞당겨 '21. 2. 15.(월)까지 지급하겠습니다.
- (납세유예)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붙임5)
 - (신청방법)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접속 → ② 신청/제출 → ③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 민원명 '납부
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⑤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3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신고도움자료 확대 제공

-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 특히, 이번 신고부터 사업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세법해석사례」 탭*(tab)을 추가하여 유권 해석사례(32건)를 제공합니다.
 - * 개별분석자료, 기본사항, 과거신고내역,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 (공통 도움자료)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 최근 2년 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신고 변동 추세선·원 그래프 등 시각화 자료
- (개별 도움자료) 빅데이터, 내외부 과세자료, 현장정보 등을 분석하여, 업종, 규모, 업황 등 납세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97만 명의 사업자에게 추가 제공합니다.(붙임6)
 - * ('19년 2기 확정) 97종, 88만 명 → ('20년 2기 확정) 98종, 97만 명(10% ↑)

Ⅰ 분석유형별 주요 안내 항목 Ⅰ

빅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신용카드 소유자와 공제 신고 사업자 간 관계분석을 통해 타인 소유 카드에 대한 부당공제 혐의 추출 분석자료 안내
외부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 중개실적 자료 안내 ●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로페이 가맹점 매출자료 안내
과세정보 통합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직) 성형외과 지역별 평균 신용카드 매출(건당) 분석 자료 ● (수의업) 반려동물 수입통관자료 분석을 통한 매출 성실신고 안내
현장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양지 레지던스 업무무관 자산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 동일한 신용카드 매입내역을 다수 사업자가 공제받아 추징된 사례 안내 ● 유튜브 사업자의 PPL 및 간접광고 수익 성실신고 안내 ● 건물신축업자 철거비용 토지 관련 매입세액 성실신고 안내 ● 귀금속 등 기념품 취득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환전내역 매출 성실신고 안내

- (신종 거래) 새로운 업종·거래 사업자가 세무의무 등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록 사전에 안내합니다.

유 형	주요 안내 내용
해외직구 대행업	•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대상 대행수수료, 자가 사용 목적 수입물품 판매 등 매출누락 방지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생활형 숙박시설	• 유명지역 '한달 살기' 또는 '1년 살기'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 운영과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app-거래 (플랫폼 거래)	• 쿠팡 등 인터넷쇼핑몰 사업자, 배달앱, 숙박앱, 골프부킹앱, 배달대행앱 이용 사업자에 수수료 지급내역 등 매출 성실신고 안내
유사 PG 가맹업체	• 사업자임에도 대표자 개인 명의로 별도의 신용카드 결제대행 매출이 발생하여 매출 분산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수수료지급내역 안내
공유숙박	• 해외플랫폼을 통해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안내
SNS마켓 (블로그 등)	•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안내, 할인 등으로 현금결제 및 계좌이체를 유도한 후 신고누락 사례 안내
오픈마켓	• 오픈마켓 운영 사업자가 제출하는 실 판매자의 매출자료를 수집하여 건수 및 매출금액을 안내
국외 전자적 용역 제공업체	• 국외 전자적용역(app·게임·광고·클라우드컴퓨팅 등) 제공 거래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안내, 간편사업자에게 납세의무 안내 e-mail 발송

- (업종별 안내) 과세기반, 외부자료 등을 종합 분석하여 업종·유형별 신고 시 필수 고려사항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업 종	주요 안내 항목
도소매	• (매출) 일반의약품 등 약국 사업자 매출내역, 장애인보조기기 보조금 지급자료 • (매입)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매입내역 분석, 스크랩사업자 기납부자료
서비스	• (매출) 산림복지 전문업의 교육용역 제공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성실신고 안내, 해외 앱스토어 통한 모바일 게임앱 매출 성실신고 안내
건설	• (매출) 산재보험 가입자료, 산림·숲 조성 관련 임산물 공급 과세대상 안내 • (매입) 감정평가수수료 및 토지 관련 매입내역 부당공제
공통	• (매입) 금융자문·감정평가 수수료 매입 불공제, 과면세 겸업자 안분계산 • (기타) 부가세 감면신청 오류 안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성실신고 안내

- (조회방법) 홈택스 접속 시 알림창을 통해 「신고도움 서비스」에 바로 접근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입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으므로, (붙임7)

*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 홈택스 > 세무대리인 > 수입납세자 정보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비대면(언택트) 신고 위주의 납세서비스 확충

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로 「모바일」 신고서비스 개편

- 모바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이번 신고부터 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에 접속하여 신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붙임8)
 - 다만, 신고서식이 복잡한 영세율·재활용·면세·의제매입 관련 신고는 추가 개발 후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21년 7월경)입니다.

〈 (종전) 모바일신고 대상자 〉

구 분	무실적	임대업	임대업 외	납부면제
과세유형	모 든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이용요건	무실적 사업자	단일업종으로 ① 임대차 변동이 없는 자 ② 임차인이 1인 이하	단일업종으로 매출액만 있는 자	납부면제자 (임대 제외)



〈 (확대) 모바일신고 대상자 〉

연번	세부 내용	대상자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신고(기한후신고 포함)	모든 사업자
2	종전 모바일신고 대상자의 기한후신고	(영세율·재활용·면세·의제매입 관련 신고 제외)

- '모바일 신고요령 동영상'을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유튜브에 게시하였으니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 간편신고 서비스 개편

- 세무서 방문이 많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도입('20년 1월)한 부가가치세 ARS 신고시스템*을 개편합니다.
 - (기존) 소규모 부동산 임대업자(직전기와 임대차내역이 동일)는 국세청 'ARS 신고센터(1544-9944)'에 연결하여,(붙임9)
 - － 우편·모바일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미리 입력된 신고내용의 확인만으로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 (추가) 매출·매입내역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도, 기존의 홈택스 전자신고(원클릭)와 모바일 간편신고 외에 ARS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 (신고방법) 'ARS 신고센터(1544-9944)'에 연결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번호만으로 인



증* 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ARS신고용 개별인증번호 없이 본인인증절차 간소화

홈택스 개선으로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사전 안내

- (신용카드번호 입력 검증)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입력 시 사업용 신용카드를 '그 밖의 신용카드' 항목에 기재할 경우 오류 메시지를 생성하여 중복 기재를 방지합니다.
- (전자신고 오류 안내 정교화) 전자신고 완료 시, 유형별 오류내용*과 함께 오류금액, 정상금액, 오류처리 방법을 알림창을 통해 상세내용을 추가하여 안내합니다.
 - * 신고서식 간 오류, 신고항목 기재오류 등 219개 유형으로 세분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안전한 전자신고 당부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 (신고서 작성) 신고서는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해야 하며, 신고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고지원) 다만, 예외적으로 자기작성이 어려운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 신규 사업자 등에 한해 신고지원 예정입니다.
 - ※ 부득이하게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직원이나 신고도우미의 신고서 대리작성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 직원은 사업자의 신고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응대

5

사전안내 불응자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 강화

-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 특히,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를 확대하고 더욱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니 신고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 사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 * (조세범처벌법 § 3 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 벌금
- 사업자분들께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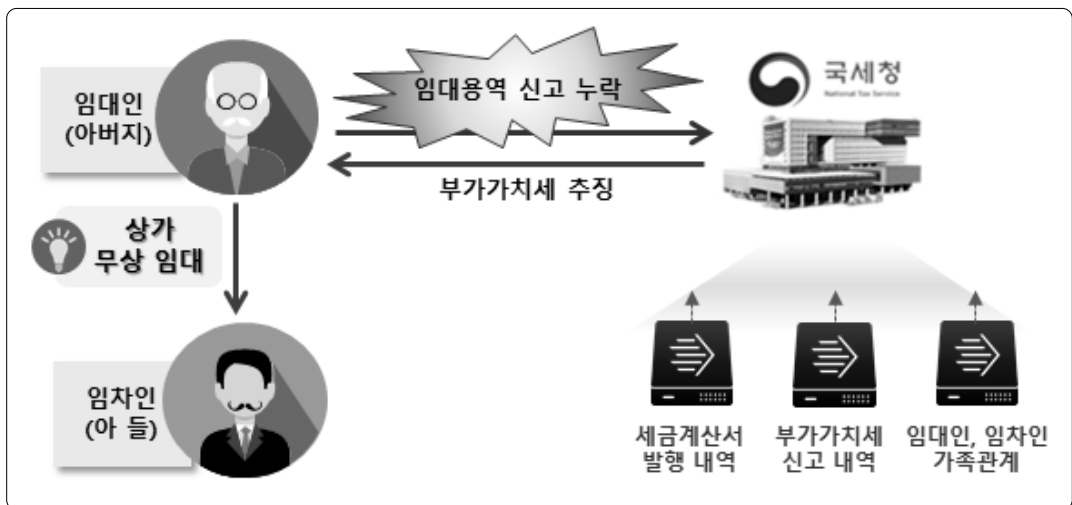
사례 1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장을 무상 임대하고 매출신고 누락

[분석 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는 카페를 운영하는 아들 B에게 본인 소유 상가를 무상으로 임대하면서
 -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부가가치세법 제12조)임에도,
 -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
 - 일반적인 용역의 무상공급과 동일하게 과세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아, 신고 누락한 혐의

[조치 사항]

- 임대인과 임차인의 가족 관계 및 사업내역 등을 분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 신고 내역이 없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를 추출한 후,
 - 임차인(특수관계인)의 개업일, 인근 임대차 시세 등을 확인하여 임대인의 부동산 임대용역 신고누락분 점검 추진





사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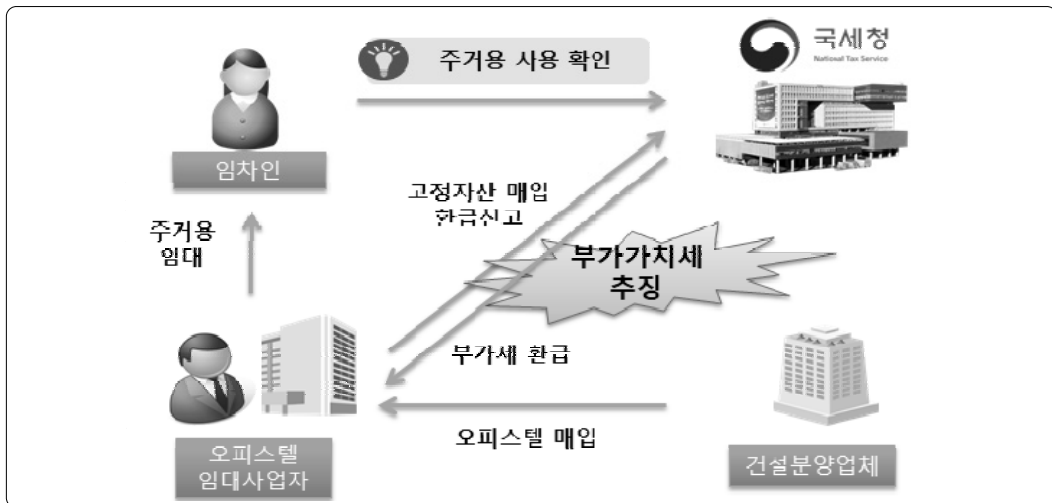
신축 오피스텔 취득시 매입세액 환급 받은 후 임차인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환급세액 추징

[분석 내용]

-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C는
 - － 신축 오피스텔을 구입한 후 구입대금의 10%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음
 - －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임대해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면세인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매출실적이 없는 것으로 신고함

[조치 사항]

- 임대사업장 전입세대의 주민등록 내역, 전기 사용내역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주거용 임대로 면세전용한 임대사업자 선정
- － 주거용 임대 사실 및 시기를 확인하여 당초 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추징 추진(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사례 3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추출

[분석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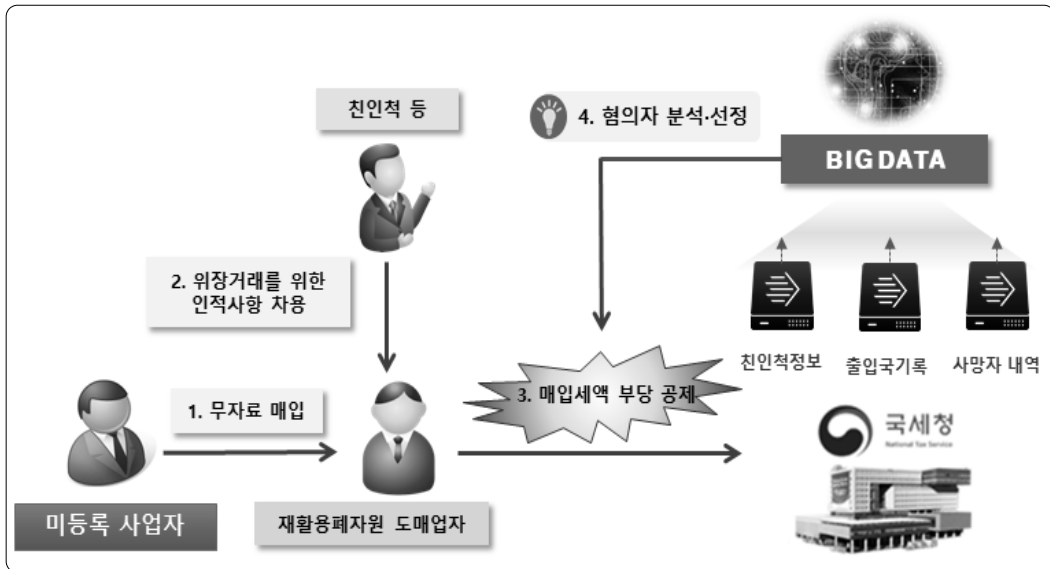
- 사업자 D씨는 재활용폐자원 도매업자로서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고액의 폐자원을 매입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게 되자,
- 친·인척, 사망자 등의 인적사항을 차용(도용)하여 정상거래로 위장한 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치 사항]

- 친·인척 및 사망자, 해외출국자, 군복무자 등으로부터 고액 매입거래가 있는 부당공제 혐의자를 선정하고,
- － 매입거래자의 소득 수준, 연령, 거주지, 재산 등의 자료를 연계분석하여 고액 탈루혐의자 대상 점검 추진



사례 4 고철 도·소매 사업자가 철·구리 스크랩 거래시 전용계좌를 미사용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분석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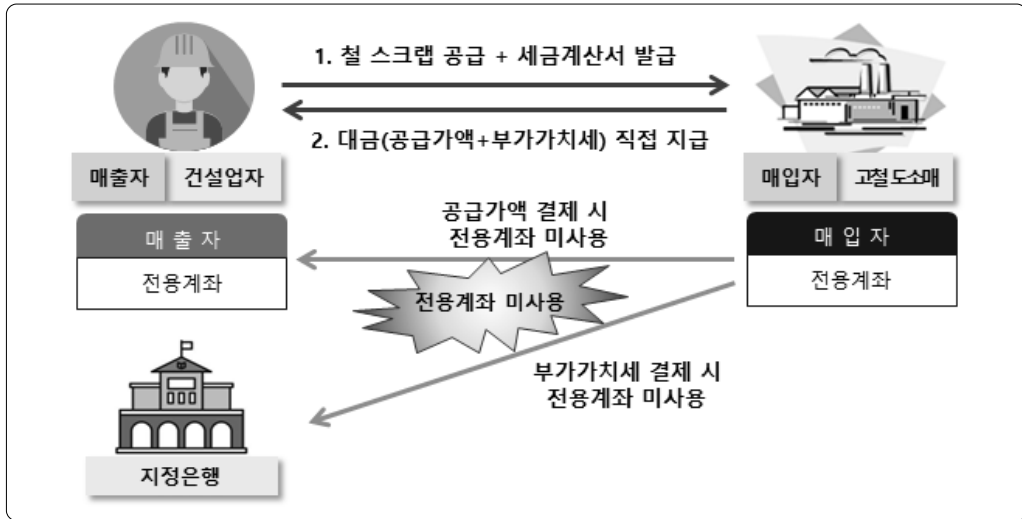
- 매입자납부제도 도입 이후 철·구리 스크랩 등 적용대상 품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해야함에도
- －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거래한 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분석
-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조치 사항]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품목이 철·구리 스크랩임에도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거래 추출·점검 추진



- (업종, 품목명 분석) 고철 도·소매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품목과 전용계좌 거래내역 비교 분석
- (거래처 전용계좌 사용률 분석) 매출에 대한 전용계좌 입금율이 99% 이상인 사업자의 매출내역을 분석하여 전용계좌 미사용자 추출
- (전용계좌 이상거래 분석) 전용계좌 입·출금 내역이 한쪽만 존재하거나, 한쪽 거래만 과다한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비교 분석



붙임 1 -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① 계속사업자

-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 의무 없음)

-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1.1. ~ 12.31.까지 1년
- (신고·납부 기간) 다음해 1.1. ~ 1.25.까지 신고·납부
- * 다만, 7.1.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 (고지세액 3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②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③ 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붙임 2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 안내

1. 부가가치세 신고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신고 (P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모든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 (개인) 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 (법인) 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 이용시간 : 매일 06:00~24:00(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8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전자신고 (P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모바일 신고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무실적자 ○ 접근방법 :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 접속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우편신고 · 방문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시간 : (법인) 2021. 1. 25.(월) 18:00까지 (개인) 2021. 2. 25.(목) 18:00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2. 부가가치세 납부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 모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접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자진납부' 선택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 납부시간 : 07:00 ~ 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 공인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납부시간 : 00:30 ~ 23:30(연중 무휴)
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납부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 납부시간 :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세무서 (무인수납 창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 (현금수납창구)* 현금 납부 * 수납집중기간(신고기간 종료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등에만 운영

참 고	세무서 수납창구의 「무인수납방식」 운영
-----	-----------------------

- (운영개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수납을 확대하고 세금납부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21.1.1.부터 모든 세무서 수납창구를 무인수납창구로 운영
 - 모든 납세자는 무인수납창구에서 모든 세목의 국세를 신용카드로 한도 없이 납부 가능
- (시범운영 성과) '20년에 20개 세무서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무인수납창구 이용률(인원)이 98.9%로 방문 납세자 대부분이 직원과 대면 없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남
- (설치장소) 무인수납창구는 세무서 1층 현관, 민원실 등 납세자 접근성이 좋은 공간에 설치
- (운영방법) 편리한 납부를 위해 고령자 등 부득이한 경우와 납세자 방문이 집중되는 수납집중기간*에는 현금 수납창구도 병행 운영
 - * 신고기간 종료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붙임 3 -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

No	구분	제공 항목(총28개)	제공일정	비고
1	매출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21. 1. 14.	
2		신용카드 매출	21. 1. 13.	
3		현금영수증 매출	21. 1. 1.	
4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21. 1. 15.	
5		수출실적 내역(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21. 1. 11.	



6	매입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21. 1. 14.	
7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21. 1. 14.	
8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21. 1. 13.	
9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21. 1. 1.	
10		현금영수증 매입	21. 1. 1.	
11	공제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21. 1. 14.	
12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21. 1. 1.	
13		재고납부세액	21. 1. 1.	
14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21. 1. 1.	
15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21. 1. 1.	
16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세액	21. 1. 1.	
17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세액	21. 1. 1.	
18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세액	21. 1. 1.	
19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1. 1. 15.	
20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21. 1. 14.	
21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21. 1. 11.	
22	기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21. 1. 1.	
23		수정신고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신고마감후	
24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21. 1. 14.	
25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21. 1. 14.	
26		국고입금세액 정보(세무대리인)	21. 1. 15.	
27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21. 1. 15.	
28		음식·숙박업 직전기 사업장현황명세서	21. 1. 1.	

붙임 4 - 코로나19 대응 관련 부가 분야 법령개정 주요 내용

①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조특법 § 108의4 신설)

- (감면대상)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 원 이하이고,
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
*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 (감면세액)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과 간이과세방식(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과의 차이금액(A-B)

A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신용카드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 :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5%	2. 소매, 도매, 음식점업	10%
3. 농림어업, 제조, 숙박, 운수, 정보통신업	20%	4. 건설, 그 밖의 서비스업, 기타업종	30%

- (신청방법) 세액감면 신청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
- (적용기간) 시행일('20.3.23.)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20년 한시적으로 적용(부칙 § 4)

②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적 상향(조특법 § 108의5 신설)

- (개정내용) 연매출 3천만 원 이상 4천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에 대해 '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
- (적용대상) 다음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간이과세자
 - ①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 원 이상 4천800만 원 미만일 것
 - ② 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 (적용기간) '20년 1~12월 과세기간(1년) 한시 적용(부칙 § 5)
 - * 시행일('20.3.23.)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적용

붙임 5 - 경영애로·재난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 주요 내용

-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신청시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

● 지원 대상

- (경영 애로)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소재한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실시(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구 분	지정일	지정기간 만료일	지정 지역	사유
고용위기지역 (고용노동부 고시)	'18. 4. 5.	'20. 12. 31.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 창원 진해구	조선업 불황
	'18. 5. 4.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산업통상자원부)	'18. 4. 5.	'22. 4. 4.	(전남) 영암군, 목포시	
	'18. 5. 29	'21. 5. 28.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해남군·영암군·목포시	

- (재난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실시(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선포일	재난 지역	사유
'18.09.17.	(전남) 완도 보길면, (경남) 함양읍·병곡면 (경기) 연천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	태풍
'18.10.24.	(경북) 영덕군, 경주시 외동·양북면, (경남) 거제시 일운·남부면 (전남) 고흥군 동일면, 완도군 소안면·청산면	태풍
'19.04.06.	(강원) 강릉시·속초시·동해시·고성군·인제군	산불
'19.09.20.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흑산면	태풍
'19.10.10.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영덕군	산불
'19.10.17.	(전남) 해남군, (경북) 경주시·성주군, (전남) 진도군 의신면 (강원)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동해시 망상동	태풍
'20.03.15.	(대구) 대구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질병

- (추가 연장)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최초 연장 3개월 이후 1개월씩)에서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추가 연장

붙임 6 -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 [예시]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매출	○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신고 누락
	○ 직원이나 친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금액을 신고 누락
	○ 과·면세 검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 수정 세금계산서 잘못 작성하는 사례
	○ 수출통관내역,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발급 금액을 신고 누락
	○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매입	○ 면세·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 토지취량비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잘못 공제
	○ 사업용 신용카드와 그 밖의 신용카드를 중복으로 잘못 공제
	○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정기 신고 시 중복으로 잘못 신고
	○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안내

기타	○ 과세기간(6개월) 동안 사업자 기준(모든 개인 사업장 합산) 총 공급가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감면을 신청하는 사례 안내
	○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 보다 과다하게 공제
	○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 보다 과다하게 공제
	○ 면세비율 증감에 따른 납부세액 재계산 안내

업종별·항목별 주요 안내자료	
건설업	○ 산재보험에 가입된 건설공사 현황자료 성실신고 안내
건설업	○ 인테리어사업자 과세표준 대비 세금계산서 매출비율 분석
건설업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아파트 시설공사 자료
건설업	○ 태양광발전기 설치사업자 토지공사 등 성실신고 안내
전문서비스업	○ 치과 병의원 미백 등 과세 치료항목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전문서비스업	○ 건축사 감리용역 과세매출 성실신고 안내
전문서비스업	○ 성형외과 지역별 평균 신용카드 매출(건당) 분석자료 안내
임대업	○ 특수관계자 간 무상임대 등 성실신고 안내
임대업	○ 임차인 확정일자관리부 분석자료 안내
제조업	○ 비대면 소비 증가 관련 가공식품 제조업 성실신고 안내
운수업	○ 운수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이외 매입 과다자료 안내
숙박업	○ 숙박어플, 배달어플 등 운영사업자에 수수료 지급한 내역 안내
숙박업	○ 유명지역 '한달 살기' 또는 '1년 살기'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 운영과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서비스업	○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대상 대행수수료, 자가 사용 목적 수입물품 판매 등 매출누락 방지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업	○ 미용실 내부기준에 따른 봉사로 지급액 매출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업	○ 배달대행 가맹사업자 수수료 지급내역 안내
서비스업	○ 스크린야구, 스크린골프 운영 사업자 매출 성실신고 안내
도·소매업	○ 오픈마켓 등 실사업자 판매(결제)대행자료 안내
도·소매업	○ 제로페이(zeropay)를 통한 매출액(결제금액) 안내
도·소매업	○ 주유소 사업자 면세유 매출액 안내
도·소매업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환전자료 등 매출 성실신고 안내
도·소매업	○ 장애인보장구 보조금 지급 내역 안내
공통	○ 접대성·개인적 사용 등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 성실신고 안내



공통	○ 통산 부가가치율 저조 사업자 신고 분석자료 안내
공통	○ 귀금속 등 기념품 취득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공통	○ 기타 현금매출 신고내역이 없는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공통	○ 형사소송관련 업무무관 매입세금계산서 성실신고 안내
공통	○ 매입자납부특례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붙임 7 - 비대면(untact) 전자신고 도움자료 제공 현황

제공내용	접속경로(방법)
신고안내 매뉴얼	국세청 누리집 접속 후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매뉴얼(게시번호 33번)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 소책자	국세청 누리집 접속 후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매뉴얼(게시번호 31번)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6종) * 부동산임대업, 음식점업,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화물·운수업	<p>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부가가치세)」 - 「전자신고방법 동영상 따라하기」 버튼 클릭</p> <p>국세청 누리집 접속 후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에 게시된 업종별 동영상 확인</p> <p>유튜브(Youtube) 접속 후 검색창 「국세청 유튜브」 조회</p> <p>모바일 국세청 누리집 접속 후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방법 동영상 따라하기」 터치</p>
신고도움서비스	<p>(납세자용)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클릭</p> <p>(세무대리인용) 홈택스 접속 후 「세무대리인」 - 「수입납세자 정보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과세기간 선택 후 「세무대리인 일괄조회」 클릭</p>
신고안내문	홈택스 접속 후 「My 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에서 직접 조회
신고서 작성사례 책자	국세청 누리집 접속 후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매뉴얼(게시번호 34번)
기한연장·징수유예 신청	홈택스 접속 후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카드뉴스	국세청 공식 블로그(아름다운 稅상),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에 게시

붙임 8 - 부가가치세 비대면 상담서비스 및 챗봇 상담서비스

● 부가가치세 비대면 상담서비스

- 국세상담센터(☎126)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상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상담원 연결 없이도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주요 내용

구 분	경로	주 요 내 용
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상담센터 → 세법 상담정보 → 부가가치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관련 자주묻는 상담사례를 엄선하여 법령근거와 함께 검색할 수 있는 상담도움 프로그램 - 자주묻는 Q&A : 12개 항목, 416개 수록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 상담분야〉</p> <p>① 신고관련 주요 질의사항 ② 사업자등록 ③ 과세대상 ④ 공급시기 ⑤ 세금계산서 ⑥ 과세표준 ⑦ 매입세액 ⑧ 면세/영세율 ⑨ 가산세 ⑩ 간이과세자 ⑪ 쟁점 사례별 판단 ⑫ 납부의무 감면과 면제(2020년 귀속 한정)</p> </div>
자주묻는 Q&A 동영상	□ 국세청 유튜브 □ 국세청 누리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업종별로 사업자가 자주묻는 질문·답변을 '카톡'형식의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사전 안내(6편) - VAT 신고방법, 임대, 소매, 음식, 운수, 전자상거래업
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 사항 안내	□ 국세청 유튜브 □ 국세청 카드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관련 세정지원 사항을 동영상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하여 안내 - 소규모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확대

● 부가가치세 챗봇 상담서비스

※ 접속경로 :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 「부가세 신고 챗봇」 클릭

붙임 9 - 21년 주요 세법개정 사항

구 분	세 부 내 용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기준금액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과세유형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제외)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상향	기준금액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직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일반과세자가 공제받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매입세액공제 대상	간이과세자 중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 조정	일반·간이과세자 통합 1.0%('21.12.31.까지 1.3%)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 규정 보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추가,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 0.5%로 인하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급대가)의 0.5%로 변경
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 납부세액 신고사유 확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신고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간이과세자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추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 명확화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주소지·거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추가	한국철도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추가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 목적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건설용역)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환급 추정사유 보완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세금계산서 발급
소규모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신설	직전기(6개월)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불편사항 이제 간편하게 제출하세요

- 국세청, 2021. 1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고, 권익침해 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 그 결과로 올해부터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과 「납세자권익24」 누리집(홈페이지)을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 먼저, '21. 1. 4.(월) 개통한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납세자가 PC·모바일로 세무조사의 절차적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에 참여하도록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였으며,
 - * (현행) 전화·현장방문 설문 → (개선) PC·모바일 비대면 설문
 - 납세자의 불편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시정할 수 있어 신속한 납세자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또한, '21. 1. 1.(금) 납세자에게 필요한 권익보호 정보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납세자권익24」 누리집을 구축하였습니다.
 - * 접속경로 : www.nts.go.kr/taxpayer_advocate/main.do
 - 이를 통해 권익정보 제공뿐 아니라 권리보호요청 등 민원신청 기능까지 통합·제공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권익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적 기반 확충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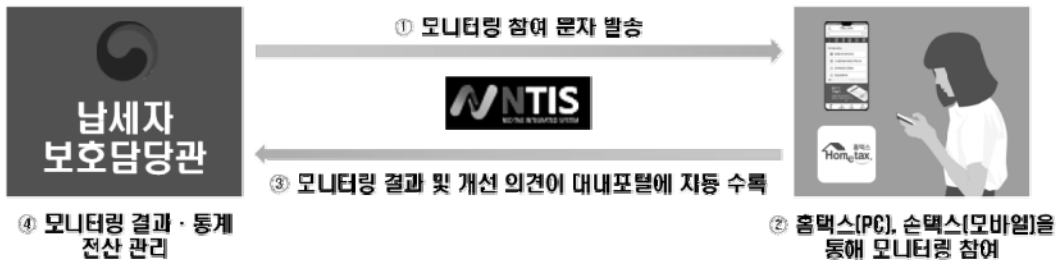
- 납세자 중심으로 권익보호요청제도 등 권익보호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적 기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 그 결과로 올해부터 조사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강화를 위한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과 권익정보 제공을 전담하는 「납세자권익24」 누리집을 새롭게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2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개통('21. 1. 4.부터)

-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착수·진행·종결 단계별로 세무조사담당 공무원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전화 또는 현장방문을 통한 모니터링 참여방법은 납세자의 편의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여 PC·모바일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는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흐름도 〉



-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은 '21. 1. 4.(월)부터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 * (제공방법) ① 안내문자 발송 → ② 납세자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모니터링 참여
- 납세자의 불편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시정할 수 있어 신속한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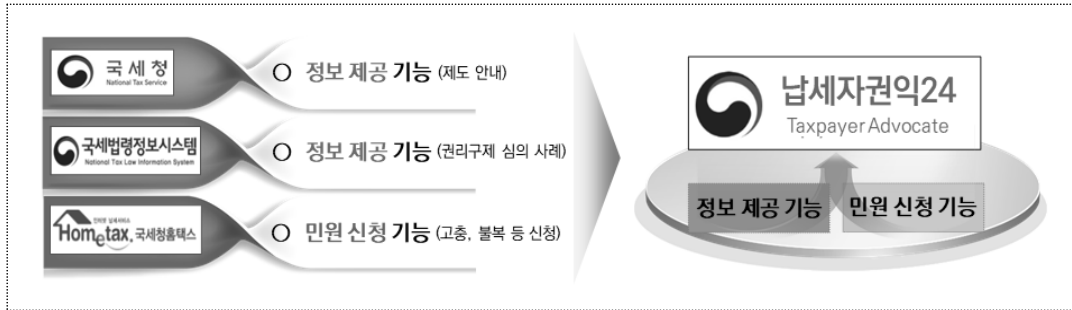
3

권익정보 전담 누리집 「납세자권익24」 개통 ('21. 1. 1.부터)

- 아울러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필요한 권익보호 정보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납세자권익24」* 누리집을 구축하였습니다.
- * '24시간 납세자와 소통하여 납세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내포한 누리집

- 이를 통해 여러 채널로 분산되었던 권익보호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정보 제공 뿐 아니라 권리보호요청 등 민원 신청 기능까지 통합·제공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 납세자권익24 제공기능 비교〉



- 「납세자권익24」 누리집은 '21. 1. 1.(금)부터 개통하여 납세자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접속경로 : www.nts.go.kr/taxpayer_advocate/main.do
- 권리구제 등이 필요한 경우 적시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이 되는 권익보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납세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4 향후 추진방향

- 현재 국세청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납세서비스의 재설계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 올해 하반기에는 권리보호 민원1) 진행상황에 대한 「실시간 알림서비스2)」를 제공하는 등 납세서비스 확대를 통해 납세자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 1) 납세자보호담당관·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심의하는 권리보호요청 및 고충민원
 - 2) 권리보호요청 및 고충민원에 대해 처리단계별로 안내문자를 전송하거나 민원인이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진행상황 실시간 조회 ('21년 8월 예정)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참고 2 - 「납세자권익24」 누리집 구성

① 메인페이지

<주요메뉴 설명>

- ① 납세자권익보호 제도 소개 : 납세자권리현장,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등
- ② 권리구제/불복 신청 안내 : 권리보호요청, 고충민원, 불복 신청 등
- ③ 성실납세우대 소개 : 세금포인트, 모범납세자 추천(신청), 아름다운납세자
- ④ 세무지원/상담 신청 안내 : 고객의 소리(VOC), 영세납세자지원단,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인터넷 상담신청 등
- ⑤ 심의사례/자료실 : 분기별 주요 심의사례, 심의사례 검색 등

② 납세자권익보호 소개

납세자권리현장, 납세자보호관(담당관), 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권리구제제도 등 납세자에게 필요한 권익보호 정보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소개

③ 권리구제/불복 신청

권익보호 정보 제공 뿐만 아니라 권리보호요청 등 신청기능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실효성 있게 납세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

④ 성실납세우대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세금포인트 제도, 모범납세자제도 등 각종 성실납세우대제도에 체계적으로 안내

⑤ 세무지원/상담 신청

납세자의 세금에 대한 궁금증 해소나 애로·불편사항을 건의하기 위한 영세납세자지원단, 민생지원소통추진단 등 다양한 세무지원·상담 제도 안내 및 신청방법 소개

⑥ 심의 사례/자료실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권리보호요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사청구에 대한 주요 심의사례·발간 책자·세무서식 등을 한 눈에 확인 가능하도록 제공

2021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회계기준 안내

- 한국회계기준원, 2021. 1

1 개 요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정

- 한국회계기준위원회(이하, KASB)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 '사업결합' 외 2개 기준서와 연차개선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외 3개 기준서를 개정함. 이 개정 내용은 '22.1.1.부터 시행 (조기적용 가능)될 예정
- 또한 KASB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를 개정하였으며, 이 개정 내용은 '23.1.1.부터 시행(조기적용 가능)될 예정

□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 KASB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 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외 2개 장을 개정하였음. 이 개정 내용은 '21.1.1.부터 시행될 예정
- 또한 KASB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6-90]에 대해 유효기간(2023.12.31.)을 신설하였으며, '21.10.30.부터 시행

2 주요 내용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 (사업결합) 전면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가 공표 ('18.3.)됨에 따라, 이를 참조하는 K-IFRS 제1103호의 관련 내용 또한 '개념체계'(2018)로 대체함
 - 인식원칙의 예외사항을 추가하여, K-IFRS 제1037호와 제2121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 해당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유형자산)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문단을 신설
 -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 (손실부담계약)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에 대한 원칙을 추가함
 - K-IFRS 제1037호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증분원가 + 직접 관련 그 밖의 원가 배분액)임을 명확히 함
- (채무제표 표시) K-IFRS 제1001호 문단 69(4)와 73 등을 수정하여 부채의 유동·비유동을 분류할 때, 고려할 사항을 명확히 함
 - 채무자가 보고기간말에 채무관련 계약사항(약정사항)을 준수한다면, 채무자에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함
 - 부채의 결제 연기 가능성과 경영진의 기대는 부채의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부채는 ① 현금 이전, ② 재화나 용역 제공, ③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 이전을 통해 결제됨을 명확히 함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연차개선

- (최초채택) K-IFRS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의 자산·부채 측정)의 적용범위에 자산·부채뿐 아니라 누적환산차이도 포함하도록 개정함
- (금융상품) 차입자와 대여자간에 지급하거나 받은 수수료(차입자와 대여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받은 수수료 포함)만 '새로운 조건에 따른 금융부채 현금흐름'에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함
 - * 제3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새로운 조건에 따른 금융부채 현금흐름에서 제외
- (리스) 리스개량 변제액 회계처리에 대해 혼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삭제
 - * K-IFRS 제1116호 사례13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리스 인센티브가 아닌 것으로만 명시하여 혼란을 유발할 수 있음 → 해당 문구 삭제
- (농림어업) 생물자산 등의 공정가치 측정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의 공정가치 측정 원칙과 일관되게 해당 자산에 대한 세금 관련 현금흐름도 측정 시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함

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

- ☐ (특수관계자 공시) 주요경영진 보상 총액과 (세부)분류별 금액에 관한 공시 모두가 생략 범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 ☐ (중간재무제표) 직전 연도의 동일 중간기간에 대한 현금흐름표나 자본변동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손익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비교 표시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에 손상차손누계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관계기업이나 공동지배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❶ 취득원가(손상차손 누계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와 ❷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준용하여 측정한 방법 중 어느 하나로 함을 명확히 함

라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56-90] 유효기간 신설

-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56-90] '임대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 후 분양주택에 관한 회계처리'가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의 회계원칙과 일관되지 않아 해당 해석을 폐지하기 위한 유효기간(2023.12.31.)을 신설
 - 기존에 적용해온 기업들에 준비기간을 제공하고자 유효기간을 신설하였으며, 그 이후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대체될 예정

3 향후계획

- ☐ (향후계획) 회계기준원은 기준서 개정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여 원활한 시행을 유도할 예정



붙임 - 새로운 회계기준의 상세 내용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구분	개정일	시행일*	공표일
① 제1103호 '사업결합'	'20. 9. 25.	'22. 1. 1.	'20. 12. 22.
② 제1016호 '유형자산'			
③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20. 10. 16.	'23. 1. 1.	'20. 12. 22.
④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조기적용 가능

(1) 사업결합(K-IFRS 제1103호)

- ☐ IASB가 전면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공표 ('18.3월)함에 따라, 이를 참조하는 K-IFRS 제1103호의 관련 내용 또한 '개념체계'(2018)로 대체할 필요
- ☐ (개념체계 대체) K-IFRS 제1103호에서는 사업결합 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인식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개념체계 상 자산과 부채 정의를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이번 개정을 통해 동 조건에서 참조하는 개념체계를 '07년 개념체계에서 '18년 개념체제로 대체함
- ☐ (인식원칙 예외 추가) 개념체계의 대체로 인해 사업결합 취득일에 인식조건을 충족하는 부채의 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 인식원칙의 예외사항을 K-IFRS 제1103호에 추가하여, K-IFRS 제1037호와 제2121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 해당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 사업결합으로 인수된 것이 아니라 별도로 발생하였더라면 K-IFRS 제1037호 또는 K-IFRS 제2121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었을 부채 및 우발부채를 의미함

(2) 유형자산(K-IFRS 제1016호)

- ☐ K-IFRS 제1016호 문단 17(5)의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금액'에 대한 해석 및 회계처리가 기업마다 달랐음
- ☐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문단을 신설
 - (순매각금액)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금액을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3)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K-IFRS 제1037호)

- ☐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서 손실부담계약*1을 식별할 때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2 중 계약이행원가'의 범위에 대한 다양한 실무 해석*3이 존재함

- *1)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
- *2) 회피 불가능 원가: 계약을 계약을 종료하기(exit) 위한 최소 순원가. min(①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가, ②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이나 위약금)
- *3) 증분원가, 증분원가 + 직접 관련 그 밖의 원가 배분액

- ☐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에 대한 원칙을 이번 개정으로 추가함
-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증분원가 + 직접 관련 그 밖의 원가 배분액)임을 명확히 함

(4) 재무제표 표시(K-IFRS 제1001호)

- ☐ 기업이 부채를 차환(refinance)하거나 만기 연장할 것으로 예상될 때, 이를 유동부채(문단 69(4)*1)로 분류할지, 비유동부채(문단 73*2)로 분류할지 규정이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

- *1) 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중략)
 - (4)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문단 73 참조).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2) 73 기업이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후략)

- ☐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69(4)와 73 등을 수정하여 부채의 유동·비유동을 분류할 때, 고려할 사항을 명확히 함

- ❶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 채무자가 보고기간말에 채무관련 계약사항(약정사항)을 준수한다면, 채무자에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함
- ❷ (부채의 결제 연기 가능성과 경영진의 기대) 부채의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❸ (부채 결제의 의미와 그 방식의 명확화) 부채는 ① 현금 이전, ② 재화나 용역 제공, ③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 이전을 통해 결제됨을 명확히 함
 -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경우(예: 전환사채=사



채권(만기 3년) + 전환권(6개월 내 전환조건)), 전환권이 자본의 정의를 충족(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한다면, 주계약(사채권)은 비유동부채로 분류*

* (사례) 전환사채(사채(만기 3년) + 전환권(6개월 내 전환조건))

→ (경우 1) 전환권이 부채인 경우: 전환사채 전체를 유동부채로 분류

→ (경우 2) 전환권이 자본인 경우: 사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전환권은 자본)

□ 이 개정이 현재의 회계처리 관행에 유의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

- 다만, 상기 ③의 개정으로 전환권이 제1032호 자본의 정의를 미충족할 경우(위의 사례 (경우 1)과 같이) 전환사채 전체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일부 기업은 전환사채 등의 유동성 분류 결과가 종전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연차개선

구분	개정일	시행일*	공표일
연차개선 2018-2020			
①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②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20. 9. 11.	'22. 1. 1.	'20. 12. 22.
③ 제1116호 '리스' 적용사례 개정			
④ 제1041호 '농림어업' 개정			

* 조기적용 가능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K-IFRS 제1101호)

□ K-IFRS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의 자산·부채 측정)의 적용범위*1에 자산·부채뿐 아니라 누적환산차이*2도 포함하도록 개정함

*1) 지배기업보다 종속기업이 나중에 K-IFRS를 채택할 경우, 종속기업의 전환일 시점에 자산·부채는 ①지배기업의 연결FS에 포함될 금액 또는 ②종속기업의 전환일에 기초하여 별도로 산출한 금액 중 선택가능

*2)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

(2) 금융상품(K-IFRS 제1109호)

□ 계약 변경시, 금융부채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는지 판단할 때,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기존 금융부채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인지 검토('10% 테스트*'라고 함)

* 10% 이상 차이가 나면,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보아 기존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

- 이 경우, 차입자와 대여자간에 지급하거나 받은 수수료(차입자와 대여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받은 수수료 포함)만 '새로운 조건에 따른 금융부채 현금흐름'에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함

* 제3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새로운 조건에 따른 금융부채 현금흐름에서 제외

(3) 리스 적용사례(K-IFRS 제1116호)

☐ 리스개량 변제액 회계처리에 대해 혼란을 줄 수 있는 내용* 삭제

* 리스개량 변제액은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리스 인센티브 여부를 고려해야 하지만, K-IFRS 제1116호 사례13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리스 인센티브가 아닌 것으로만 명시하여 혼란을 유발할 수 있음 → 해당 문구 삭제

(4) 농림어업(K-IFRS 제1041호)

☐ 생물자산 등의 공정가치 측정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의 공정가치 측정 원칙과 일관되게 해당 자산에 대한 세금 관련 현금흐름도 측정 시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함

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

구분	개정일	시행일*	공표일
연차개선			
① 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	'20. 10. 16.	'21. 1. 1.	'20. 12. 22.
② 제29장 '중간재무제표'			
③ 제31장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			

* 조기적용 가능

(1)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

☐ 주요경영진 보상 총액과 (세부)분류별 금액에 관한 공시 모두가 공시 생략 범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공시 생략허용의 서술 방식을 다른 기준서와 일관되도록 개정함

☐ 주요경영진 보상에 관한 공시 생략 범위가 보다 명확해지므로, 실무 적용 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2)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9장 '중간재무제표'

☐ 직전 연도의 동일 중간기간에 대한 현금흐름표나 자본변동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손익 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비교 표시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손익계산서뿐만 아니라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에도 비교 표시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실무상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3)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에 손상차손누계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관계기업이나 공동지배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❶ 취득원가(손상차손 누계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와 ❷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준용하여 측정한 방법 중 어느 하나로 함을 명확히 함
-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에 손상차손누계액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관계기업이나 공동지배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측정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무 적용 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라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

구분	개정일	시행일	공표일
유효기간 신설 ① 해석[56-90] '임대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후분양주택에 관한 회계처리'	'20. 10. 30.	'20. 10. 30.	'20. 12. 22.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56-90] '임대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 후 분양주택에 관한 회계처리'가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의 회계원칙과 일관되지 않아 해당 해석을 폐지하기 위한 유효기간(2023.12.31.)을 신설
- 신설된 유효기간까지 해석의 효력이 있으며, 그 이후에 해석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해 대체됨
 - 해당 해석이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대체되기 전까지 이를 적용하던 기업들에게 회계정책을 변경 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제공하고자 유효기간 신설 방법을 적용